

현안과 과제

|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이 국내 수출산업에 미치는 영향

1. 개 요

미 신용등급 하향조정의 영향으로 국내외 금융시장들이 큰 영향을 받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모습이 금융시장에서 실물 경제로 파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일시적 금융 시장 불안) 그 영향의 정도와 규모에 따라 미 신용등급 하락의 파급 경로를 생각해 보면 우선 미 신용등급 하락의 영향이 대부분 일시적으로 금융 시장의 변동성을 높이는 데에 국한되어 실물 경제에 파급되는 정도가 제한적인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미국 경제의 소프트패치) 다음으로 금융 시장의 불안이 실물 경제로 파급되어 미국 경제가 소프트패치를 경험하는 경우이다. 즉, 금융 시장의 불안이 미국내 생산 부진으로 전이되어 투자와 고용이 회복되지 못하고 다시 소비를 위축시키는 경로이다. 다만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대부분 미국 내에 그치게 되어 미국 경제가 일정 부분 침체되지만 자생적인 복원력을 통해 일정 기간 이후 정상 궤도로 돌아올 것으로 판단된다.

(선진국 경제의 더블딥) 마지막으로 미국 경제의 침체가 금융시장을 통해 유럽재정위기를 심화·확대시키고 이는 다시 금융시장에 충격을 가하면서 선진국 경제가 동반 더블딥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이다. 특히 이 경우 선진국의 수요 위축으로 수출에 의존하는 개도국들도 동반 침체할 가능성이 높다.

2. 미국 신용등급 하락이 국내 수출산업에 미치는 영향

IMF는 이미 7월 전망에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의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이와 같이 미국 경제의 경기 하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미국 국가 신용등급의 하향조정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미국 경제를 비롯한 선진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수출/생산 비중) 한편 국내 주력 수출산업의 수출 시장 의존도(총수출/ 생산)를 분석해 보면 우리 주력 수출산업들중 조선(85.2%), IT(65.0%) 등의 수출 의존도가 절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건설(48.3%), 자동차(37.9%), 기계(32.7%), 화학(30.9%) 등의 순이며 철강(15.4%)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출 비중을 보이고 있다.

(선진국수출/생산 비중) 또한 선진국 수출 시장 의존도 (OECD수출/생산)는 조선(26.5%), IT(22.2%) 등이 선진국 수출 시장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자동차(16.0%), 기계(10.2%) 등도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철강(5.2%), 화학(4.4%), 건설(3.8%) 등은 상대적으로 선진국 의존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국내 주력 수출산업 경기) 현재의 상황과 유사한 측면이 있는 미국 서브프라임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는 기계, 자동차, 철강, 화학 산업의 수출 경기 침체가 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기계 산업의 수출 증가율은 전년대비 -31.5%로 8대 업종중 가장 큰 폭의 침체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자동차(-27.5%), 철강(-22.9%), 화학(-14.5%), IT(-4.2%) 등의 수출도 감소세를 나타냈다. 한편 수주 산업인 조선업의 2009년 수출증가율과 해외건설수주액 증가율은 소폭 플러스 성장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2008년의 증가율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을 기록하였다.

(향후 주력 수출산업 경기 전망) 국내 주력 수출산업의 선진국 수출 비중과 금융위기 직후 주력 수출산업 경기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타격이 큰 산업은 '자동차', 'IT' 등으로 판단된다. 또한 '철강', '기계', '화학' 등도 선진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아 일정 부분 수출 경기 하강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조선, '건설(해외건설)' 등 수주 산업들은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선진국 경제가 더블딥에 빠져 개도국 경기가 크게 악화될 경우 경기 침체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3. 시사점

미 신용등급 하락 문제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대비하기 위해서 **첫째**, 주요 수출 업종별 전략 마련과 주요 수출 시장 수요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산업 경기 경착륙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둘째**, 수출 경기 하강에 대비하여 산업별 주력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세 감면, 금융 지원 확대 등의 보다 적극적인 내수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세계 경제 전반의 위축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비하고 수출 시장별 경기 상황에 따른 차별화 수출 전략이 요구된다.

1. 개 요

○ 미국 신용등급 하락과 금융 시장 불안

- (미국 신용등급 하향조정) 미국 정부의 부채 상한 조정에 대한 협상이 타결되었으나, 8월 5일을 기해 S&P는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하향 조정
 - 미 정부의 부채 누적에 따른 디폴트 위험이 고조되었으나, 부채상한 증액 마감을 앞두고 정부와 의회는 '증세(增稅) 없는 재정지출 감축안'에 합의
 - 그러나 S&P는 사상 최초로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상위등급인 트리플에이(AAA)에서 더블에이플러스(AA+)로 하향조정하고 부정적 전망을 유지
- (금융 시장 불안) 현재 주요국 주식시장이 급락하고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는 금, 일본 엔화, 미국 단기 국채 가격은 급등한 반면 세계 경기 회복의 불확실성으로 국제유가는 하락세를 시현

○ 미국 신용등급 하락의 파급 경로별 세계 경제의 향방

① (일시적 금융 시장 불안) 미 신용등급 하락의 영향이 금융 시장에 국한되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경우

- 미국 신용등급 하락의 영향이 대부분 일시적으로 금융 시장의 변동성을 높이는 데에 국한되어 실물 경제에 파급되는 정도가 제한적인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음
 -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따른 영향을 조기 진화하고자 미국 정부가 대규모의 양적 완화 정책을 추진
 - 특히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후 G7, G20, 유로존들의 금융 시장 안정을 위한 시의적인 공조가 이루어져 조기에 진화
-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이미 경기 하강을 시작하고 있는 미국 경제에 일정 부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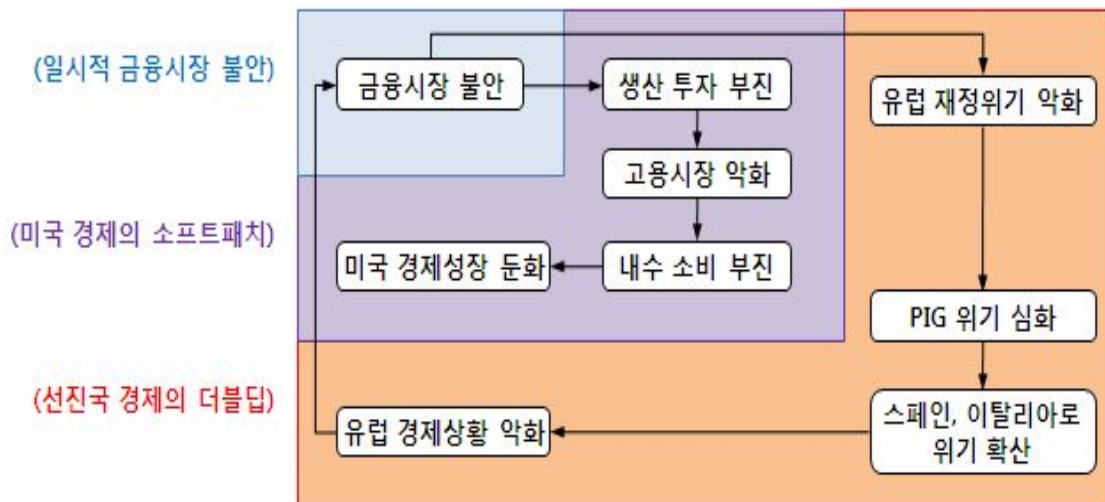
② (미국 경제의 소프트패치) 금융 시장의 불안이 실물 경제로 파급되어 미국 경제가 소프트패치를 경험할 경우

- 금융 시장의 불안이 미국내 생산 부진으로 전이되어 투자와 고용이 회복되지 못하고 다시 소비를 위축시키는 경우를 가정함
 - 다만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대부분 미국내에 그치게 되어 미국 경제가 일정 부분 침체되지만 자생적인 복원력을 통해 일정 기간 이후 정상 궤도로 돌아올 것으로 판단됨
- 이 경우 미국 경제가 짧은 침체를 거쳐 다시 궤도에 올라서기 때문에 유럽 등 선진국과 개도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③ (선진국 경제의 더블딥) 미국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유럽재정위기가 더욱 악화되면서 선진국 경제가 더블딥에 빠질 경우

- 미국 경제의 침체가 금융시장을 통해 유럽재정위기 상황을 악화시키고 이는 다시 금융시장에 충격을 가하면서 선진국 경제가 동반 더블딥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
 - 미국 경제의 위기로 유럽 재정위기가 심화되어 PIG 국가들의 위기가 스페인, 이탈리아로 전이되는 상황으로 발전될 수 있음
 - 이는 유럽 경제 전체의 위기로 확산되고 다시 국제금융시장을 혼란에 빠뜨려 미국 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할 수 있음
- 특히 이 경우 선진국의 세계 상품 수요가 위축되어 수출에 의존하는 개도국들의 경제도 동반 침체하게 됨

< 미 신용등급 하락의 시나리오별 파급 경로 >



2. 미 신용등급 하락이 국내 수출산업에 미치는 영향

○ 세계 경제의 성장 둔화 가능성

- IMF는 이미 7월 전망에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의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측
 - IMF는 글로벌 경기 하방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2011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4%(4월 전망)에서 4.3%(7월 전망)로 0.1% 포인트 하향조정함
 - 특히 미국 경제의 회복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진단함
 - 또한 남유럽 등 유럽 주변부 국가의 금융 시장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함
- 이와 같이 미국 경제의 경기 하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미국 국가 신용등급의 하향조정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미국 경제를 비롯한 선진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IMF의 주요 지역 및 국가의 경제성장률 전망 >

(%)

	2009	2010	2011(E)		
			'11.1월 전망	'11.4월 전망	'11.7월 전망
세계 경제성장률	-0.5	5.1	4.4	4.4	4.3
선진국	-3.4	3.0	2.5	2.4	2.2
미 국	-2.6	2.9	3.0	2.8	2.5
유로지역	-4.1	1.8	1.5	1.6	2.0
일 본	-6.3	4.0	1.6	1.4	-0.7
개발도상국	2.8	7.4	6.5	6.5	6.6
중 국	9.2	10.3	9.6	9.6	9.6
러 시 아	-7.8	4.0	4.5	4.8	4.8
브 라 질	-0.6	7.5	4.5	4.5	4.1
인 도	6.8	10.4	8.4	8.2	8.2

자료: IMF.

○ 국내 주력 수출산업의 선진국 수출 비중

- (수출 시장 의존도) 우리 주력 수출산업들중 조선(85.2%), IT(65.0%) 등의 수출 의존도가 절대적인 것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건설(48.3%), 자동차(37.9%), 기계(32.7%), 화학(30.9%) 등의 순이며 철강(15.4%)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출 비중을 보이고 있음

· 수출 시장 의존도 = $\frac{\text{총수출}}{\text{생산}}$

- (선진국 수출 시장 의존도) 우리 주력 수출산업들중 조선(26.5%), IT(22.2%) 등이 선진국 수출 시장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자동차(16.0%), 기계(10.2%) 등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반면 철강(5.2%), 화학(4.4%), 건설(3.8%) 등은 상대적으로 선진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선진국 수출 시장 의존도 = $\frac{\text{총수출}}{\text{생산}} \times \frac{\text{OECD 수출}}{\text{총수출}} = \frac{\text{OECD 수출}}{\text{생산}}$

< 산업별 수출/생산 및 OECD수출/생산 비중 >

	총수출/생산 (2009년)	OECD수출/총수출(2010년)		OECD수출 /생산
			미국수출 /총수출	
화 학	30.9%	14.2%	3.9%	4.4%
철 강	15.4%	33.8%	8.5%	5.2%
기 계	32.7%	31.2%	11.7%	10.2%
자 동 차	37.9%	42.1%	19.0%	16.0%
조 선	85.2%	31.1%	0.4%	26.5%
I T	65.0%	34.1%	12.4%	22.2%
건 설	48.3%	7.8%	1.3%	3.8%

자료: UN comtrade, 통계청, 해외건설협회, 한국은행,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정.

주: 건설의 수출/총생산은 2010년 수주액 기준임.

○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주력 수출산업 경기

- 현재의 상황과 유사한 측면이 있는 미국 서브프라임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는 기계, 자동차, 철강, 화학 산업의 수출 경기 침체가 심했던 것으로 나타남
 - 2009년 기계 산업의 수출 증가율은 전년대비 -31.5%로 8대 업종중 가장 큰 폭의 침체를 기록했음
- 다음으로 자동차, 철강, 화학, IT 등의 수출도 상당폭 감소함
 - 2009년 품목별 수출증가율을 보면 자동차(-27.5%), 철강(-22.9%), 화학(-14.5%), IT(-4.2%) 등임
- 반면 수주 산업인 조선업의 수출증가율과 해외건설수주액 증가율은 소폭 플러스 성장을 보임
 - 2009년 해외건설 수주액은 전년대비 3.2%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2008년의 19.7%과 비교해 볼 때 그 증가세가 크게 약화된 것을 알 수 있음
 - 조선업의 경우에도 수출증가율은 2008년 55.4%에 달하였으나 2009년 4.6%에 그침

<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 주요 산업별 수출증가율 >

	2008년	2009년	2010년
화학	11.5%	-14.5%	30.0%
철강	29.7%	-22.9%	25.4%
기계	23.6%	-31.5%	37.1%
자동차	-6.0%	-27.5%	39.4%
조선	55.4%	4.6%	8.8%
IT	-1.7%	-4.2%	26.0%
건설(해외건설수주액 기준)	19.7%	3.2%	45.6%

자료: 한국무역협회, 국토해양부, 해외건설협회 자료를 이용.

○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이 국내 수출산업에 미치는 영향

- (타격이 큰 산업) 국내 주력 수출산업의 선진국 수출 비중과 금융위기 직후 주력 수출산업 경기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가장 타격을 받는 산업은 '자동차', 'IT' 등으로 판단됨
- (부정적 영향을 받는 산업) 한편 '철강', '화학', '기계' 등도 선진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고려해 볼 때 일정 부분 수출 경기 하강이 불가피함
- (큰 영향이 없는 산업) 한편 '건설(해외건설)', '조선' 등 수주 산업들은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선진국 경제가 더블딥에 빠져 개도국 경기마저 악화될 경우 경기 침체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

3. 시사점

첫째, 산업 경기 경착륙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 미국 신용등급 하락 문제가 심화될 경우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경기가 급랭할 우려가 높음
-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요 수출 업종별 민관 공조의 대응 전략 마련과 주요 수출국의 시장 수요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에 주력해야 할 것임

둘째, 수출 경기 하강에 대비하여 적극적인 내수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

- 이를 위해서는 산업별 주력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세 감면, 금융 지원 확대 등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 특히 기업 프렌들리 정책의 지속 등을 통해 실물 경제 부진의 영향으로 예상되는 기업 경제 심리의 급랭 현상을 방지해야 할 것임

셋째, 통상 전쟁 대비 및 수출 시장별 차별화 수출 전략이 요구된다.

- 세계 경제 회복세 부진의 영향으로 선진국들이 개도국 수입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될 우려가 높아,
 - 주요 수출 대상국의 경제·통상 관련 규제 변화 움직임에 대한 정보의 신속한 확보, 분석, 대응을 통해 우리 수출 기업들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노력이 요구됨
- 선진국 경제권에 대해서는 기 발효된 한-EU FTA로 유럽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는 기회를 충분히 살려 유럽 시장 정보 등의 공유 등 민·관 및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공조화가 체계화되어야 함
- 상대적으로 침체 강도와 시기가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신흥 시장에 대해 적극적인 수출 진작 노력이 필요함

산업연구본부 (swhan@hri.co.kr, 02-2072-6230)